

01 교회소식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과 평화”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름다운 장식으로 감사와 사랑의 향을 올려 드린 ‘2023 성탄 점등식’.

02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사랑, 응답의 축복이 담겨 있다.

03 기획특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즉 말씀과 명령, 순종, 믿음의 분야를 살펴봄으로 과연 나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는지 점검해 본다.

04 간증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회복은 물론 3년 된 이명이 치료되고 고통 받던 신장 결석이 사라져 영육 간에 축복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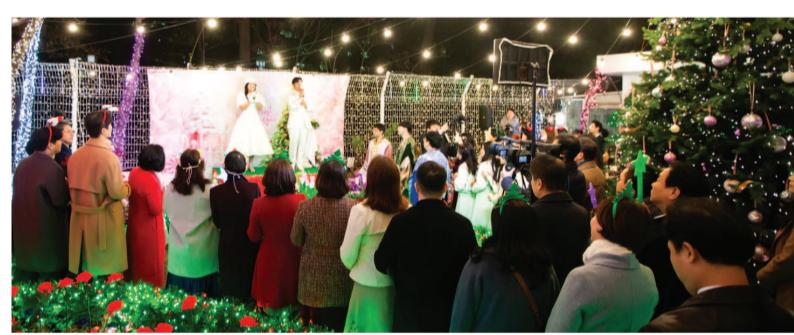
제1008호 2023년 12월 1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2023 성탄 점등식



지난 12월 8일(금) 오후 8시, 성탄절을 앞두고 유튜브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2023 성탄 점등식’이 있었다.

올해는 한 해 동안 각종 예배와 행사 시 특송과 공연 등으로 수고한 예능 분야의 일꾼들이 함께한 가운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점화스위치의 버튼을 누르자 일시에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이 수놓아지며 사택 예배실 정원을 환하게 밝혔다.

예능위원회 서승원 집사와 윤권능 형제의 특송 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우리 죄를 씻기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빛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탄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성탄을 기뻐하는 케이크 컷팅 후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며 성탄 점등식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큰 절기 중의 하나로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해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뜻 깊은 날을 맞이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이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어려움을 대신 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것도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릇으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짐승과 다름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요 6:48~51).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난하게 사셨는데, 이는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를 부우켜 하시기 위함이었지요(고후 8:9).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흠도 점도 없는 보혈을 흘리셨으며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이 죽임당하셨기에 사망에 매여 계실 필요가 없으셨지요.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유행(롬 6:23)의 저주에서 풀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사망

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요,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6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전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헤어 주셨지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불렀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과 펫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자들의 압제로 눌려 있던 사람들과 가난으로 궁핍하게 지내던 많은 사람에게 한줄기 큰 소망의 빛으로 임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면 주님께서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곁에 계셔서 그 따사로움과 포근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따라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의 이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이름, 어떤 사람에게는 부요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응답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해주십니다.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문제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들으시고 합당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빙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절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에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만일 도둑의 입장에서 자신이 도둑인 것을 경찰이 모른다면 경찰이 앞에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둑인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이 나타난다면 재빨리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칠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물리칠 때의 능력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구원한 자’라는 완성이 아니고 앞으로 ‘구원할 자’라는 미래형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자요, 중보자인 구세주의 직임’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엄밀히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이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 ‘구주’, 또는 줄여서 ‘주’라 하고, 여기에 존칭어를 붙여서 ‘주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꼭 ‘주’나 ‘그리스도’를 덧붙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반드시 ‘주’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죄

를 품고 기도하는 경우, 의심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 못 구하는 경우,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 등이지요(약 1:6~8, 4:3). 따라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사랑과 응답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시며 응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됐을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조건 1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신 28:1]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란 성경 66권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기록한 것입니다(딤후 3:16).

또한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나타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해 마음에 양식 삼으면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명령’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하라고 명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들은 대부분 인생의 생사화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끼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기쁨이 되지요.

진정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신 10:13)임을 깨달아 지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행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으니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2

참된 순종 [신 28:2]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행

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차원이지요.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과 이론에는 맞지 않아서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야 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믿고 순종할 때는 불가능이 없지요(막 9:23).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 1:19).

조건 3

하나님 말씀을 믿어 드리는 것 [민 23:19]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사 55:10~11).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100% 믿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내 편에서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추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장은 내 생각과 다르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

를 생각하지 말라” 했지요.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신 후,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믿어 드렸더니 가장 합당한 때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질 때까지 변함없이 믿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회복 위해 노력했는데 이명까지 치료받았습니다”

김경열 집사 (60세, 1대대 6교구)



저는 약 3년 전부터 왼쪽 귀에 이명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샤’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심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다시 묻게 되고, 상대방 앞으로 몸을 당겨 들어야 했지요. 특히 밤에 잠자 때는 조용하니

이명으로 인한 소리가 더 크게 들려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7월, ‘2023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진행된 자정 다니엘철야 기간 중 우리 교구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요.

‘과연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1990년 5월 6일, 아내의 전도로 처음 만민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순종하여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신 주님에 대해 알게 되니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싶었고, 순종해 기쁨을 드리고 싶었지요. 성령의 주관을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에게 쌀을 가져다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가져가면 “어떻게 쌀이 떨어진 것을 아셨어요?” 하였고, 그날 가야할 곳에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안 갔는데 뉴스를 통해 그곳에 교통사고가 났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였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지역장으로서 우리 조장님들과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에게 제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떠올랐지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우치는 대로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으니 성경도 더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 지역 식구들도 열심히 심방하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2023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첫날, ‘교육 및 은사 집회’ 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말씀은 모두 저를 위한 말씀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뒤 단에서 해 주시는 전체 환자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오니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서큘레이터를 틀었는데 너무나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서큘레이터 소리가 크게 들린 적이 없었기에 고장 났나 싶어 서큘레이터를 끄니 아주 조용했지요.

저는 이 상황이 낯설어 ‘어, 이러지 않았는데.’ 하며 에어컨도 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한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명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회복은 물론, 이명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아셔서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장 결석이 사라졌어요”

상기타 성도 (27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2023년 초 어느 날,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배가 빵빵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인해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원인을 알고자 병원에 가서 검진받으니 초음파 검사 결과, 신장에 결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김상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줌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과 함께 응답받기 위해 돌아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제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델리만민교회에 저의 기도 제목을 보냈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영상)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3월에 은사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저는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고, 지난 날 저의 잘못을 회개해 나가며 은사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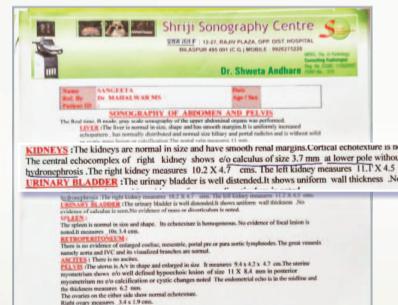
마침내 3월 24일,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 뒤 힘들었던 집안일도 잘할 수 있었고 걷거나 식사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과연 신장 결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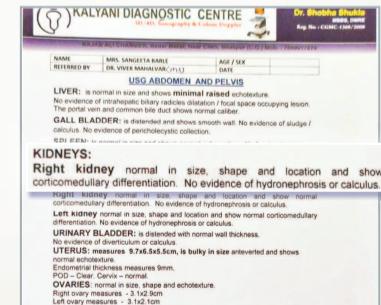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단서



기도 받기 전 ▲
3.7mm 크기의 신장 결석이 보임



기도 받은 후 ▲
신장 결석이 보이지 않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회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아방동1099-2 JJ빌딩 4층 ☎ 010-6218-0703
- 남포향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상 창원시 마산화원읍 내서읍을 광역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 051)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업사면 황한리 374 ☎ 042)841-0091, 010-7195-1099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136번길 ☎ 010-5434-392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전동 팔마로11-5 3층 ☎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8 향아빌딩 3층 ☎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 061)652-8311, 010-2325-1228
- 대구열린문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11길 5 ☎ 010-9196-392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길길 30 ☎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신면 가락길 71 ☎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제2길 53-1 2층 ☎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 02)84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앙골로 46, 광명빌딩 5층 ☎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 02)995-9951, 010-3917-600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22, 은성빌딩 3층 ☎ 031)485-9143, 010-9636-7254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선대천로 117번길 12 ☎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 031)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 031)905-2419, 010-4710-9649